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3.4.20.(목) 09:30~12:00 (150')
- 장 소 : 서소문 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총 7명 (전체 심의위원 9명)
  - 서 울 시(1) : 경제정책실장
  - 시 의 회(2) : 김인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외부위원(4) : 김은란(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영수(산업연구원), 남기범(서울시립대), 손소영(연세대)
- ※ 간사 : 전략산업기반과장 / ※ 배석 : 신산업정책관, 전략산업정책팀장 등
- 심의안건 : '22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 종합평가

(간사의 안건 보고)

## 부위원장

간사로부터 오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안건은 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작년 2022년 운영 성과와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진흥지구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행 우수 사례나 개선할 점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마 옆 자리에 위원님별로 정성적 평가표가 있고 별도의 기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평가는 2022년 성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이므로 오늘 하게 될 자치구별 발표하는 내용 중 2022년 이전의 실적이나 정량적 평가에 해당되는 사항은 참고는 하시지만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의견이 있으시거나 혹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슬라이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위원님들 자리에 있는 것처럼 종로 귀금속이죠. 그다음에 성수의 IT, 마포의 디자인 출판, 그다음에 면목의 패션 봉제, 동대문의 한방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로 귀금속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로구 입장)

### 부위원장

발표 시간은 8분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에 7분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평성과 시간 관계상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준비가 되면 바로 기록을 해주시고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종로구 발표)

###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1

보통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일주일이나 좀 긴 시간을 잡는데, 이틀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종로구 발표자

일단은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페스티벌을 이틀로 기획을 한 이유는 예산의 한정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7월에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저희가 이제 지금 종로구 내에서 기획하고 있는 게 종로 월간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 종로 주얼리 페스티벌은 2일로 또 국한되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는 10월 둘째 주를 월간 종로 주간으로 정해서 올해의 페스티벌은 이제 저희는 이틀이지만 종로구 내에서 다른 축제와의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1

아까 개선할 점에 축제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 종로구 발표자

제가 받은 자료는 축제 기간이 다소 짧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가 페스티벌에 대한 용역 업체와 기획 중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가서 축제 기간에 대해 이렇게 짧고 길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2

설문조사 하는 것으로 환류하셨는데 구별이 되어 있나요? 사업 수혜자 또는 방문자도 있을 것이고 또 소상공인도 있을 것이고. 꼭 페스티벌에 대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주얼리 지원 센터 관련해서도요.

## 종로구 발표자

주얼리 지원 센터를 이용하시면 주로 주 고객은 연간 저희가 2만 명이 조금 넘는 이용객들이 있으신데요. 주로 주얼리를 공부하시는 서울 시민에 한하여,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진흥 지구 내에 있는 업체에서 사용하십니다.

## 위원2

혹시 이용객을 계층별로 구별을 하셔서 좀 수요 조사를 좀 하시는 건가요?

## 종로구 발표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이용객들에 한해서 연령대, 그 다음에 어떤 분야를 이용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선할 점을 대표적인 거 몇 가지로 추려서 그거에 대한 저희 개선 노력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라, 일부만 저희가 보여드린 거죠.

## 위원3

서울시의 주요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뷰티 산업이잖아요. 기존에 하시는 거 외에 이 지역의 어떤 관광객이나 관련된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더 다른 계획하시는 거는 있으신가요?

**종로구 발표자**

지금 저희가 종로구 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저희가 보행 관광 벨트 구축 사업입니다. 보행 관광벨트 구축 사업이라 하면 저희 국내외 관광객들이 저희 종로에 오시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관람하시고 서촌과 통인시장을 관람하시고 북촌으로 넘어오십니다. 북촌으로 오셔서 그다음에는 창덕궁과 동묘가 있고 거기에 저희 종로 3가에 있는 귀금속 특화거리가 있으니 거기서 쇼핑을 하시고, 그다음에 광장시장과 저희 전통시장에서 이제 먹거리로 이제 요기를 하시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를 보행 관광 벨트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종로구 내에서는 그 사업과 연계하여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 뷰티 산업과는 지금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에서 저희가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사업과 연중 실시하는 운영 계획들이 뷰티, 동대문에서 진행되는 행사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

**위원3**

예를 들어, DDP에서 어떤 전시나 여가시설이 있나요?

**종로구 발표자**

DDP에서 전시회를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4**

금년에 3월부터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새로 수립하시겠다고 발주하신 거 맞나요?

**종로구 발표자**

네 지금 내일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거친 다음에 업체 선정이 되면 다음 주 중 계약 체결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위원4

그동안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안 하셨다가 이번에 새로운 계획 속에 지구단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방안들을 만들려고 하신 건가요?

#### 종로구 발표자

네, 지금 2020년도에 발행된 서울시 산업 특정 개발 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연구 보고서에 보면 지금 특정 개발 진흥지구의 필수적인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과연 용역을 발주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미리 정해놓고 갈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용역 이후에 특정 개발 진흥 계획을 2013년도에 수립한 것을 재수립하고 방향이 결정되면 필요하다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저희가 수립할 의지가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4

확정된 건 아닌거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지 안할건지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 종로구 발표자

네, 지금 저희가 세운4구역 재정비 개발 지구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산업 구역도가 지금 현재 현황과 너무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위원5

그 홍보 조형물 있잖아요. 반응이 어때요? 주민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 종로구 발표자

관련 산업 관련 영위하시는 공동체나 저희 귀금속 보석 단체분들의 말씀은 그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써 이제 작년에 시에서 시 의원님도 그러시고 확보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세워진 조형물보다는 저희가 쇼핑객들이 저희 귀금속 거리에 왔을 때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아 여기는 종로

귀금속이구나, 여기는 귀금속으로 유명한 곳이구나. 스위스에 관련된 시계를 사듯이 종로에서는 신진 디자이너나 브랜드가 아닌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이런 주얼리 하나 정도 사가는 거구나,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더 원하시는 그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3억 예산을 확보한 거는 이제 디자인 거리 조성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산업 공동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모든 걸 같이 협의 하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직전 회의 때 나온 이야기는 그런 조형물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저희 지금 현재 8번 출구 앞에 있는 조형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it입니다.

(성동구 발표자 입장)

### 부위원장

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시간은 8분 그리고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은 7분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발표)

###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나 문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2

신 스타트업을 강조하셨는데, ‘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또 세금 감면 50% 되는 권장 업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여기 성수만 그렇게 이끌어냈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다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성동구 발표자

일단 세금 운영 관련해서는 법에서 상위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이미 있습니다. 최초 분양에 대한 것은 이미 있고요, 이것을 서울시 조례로...

### 위원2

성수가 된 이유가 그게 거기서 노력하셔서 성수가 된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건지. 또 권장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 성동구 발표자

권장 업종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흥지구를 처음 고시할 때부터 it와 r&d 사업 딱 지정해서 저희가 권장 업종을 지정했고요.

### 위원2

it는 지금 성수 아니고 또 다른 곳들 다른 지역도 많은데요, 양재쪽도 있고요.

### 성동구 발표자

저희가 지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완료한 데가 3군데 밖에 안 됩니다.

### 서울시 관계자

it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된, 수립한 데는 성수밖에 없습니다. 양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 위원3

관련되어서 확대하시려고 지금 용역 추진 중이고 아마 신청도 하셔야 될 텐데 그 전체를 보면 주거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무리한 거 아닌가요?

### 성동구 발표자

주거 지역을 제외하고요. 이게 이제 준공업 지역이 기본적으로 주거 산업 상업 지역이 혼재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기존에 당연히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거고, 실제 면적에서 도시 계획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지역들을 제외한 것입니다.

### 위원3

제외한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바운더리가 만들어지면 그쪽이 다 지정되는 거지, 주거 지역을 제외할 수가 있나요?

### 성동구 발표자

네 커다란 면적은 제외하고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관계자

그게 아니고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거기에 그런 이런 산업시설만 들어와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 구역 내에 이런 산업, 권장업종들이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재 ict 특정개발지구 대상지 선정한 거 그것도 사실 다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들이거든요.

### 성동구 발표자

그렇다고 해서 꼭 it만 다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안 하더라도 지산이라고 하는 it 관련한 기반 시설은 이미 이제 필요에 의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 위원1

기업들한테 설문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취득세 감면같은 세제 혜택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물어봤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앞으로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시나요?

### 성동구 발표자

2019년도에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를 했고요. 설문 조사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적인 네트워크에서 간담회를 합니다. 여기 들어가 계시면 그분들도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가장 필요한 게 자금 지원인데 사실 자치구 내에서 자금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1

제가 여쭙보는 건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하고 얘기할 때 이 사



람들의 취득세가 필요한가요? 이미 들어왔는데

#### 성동구 발표자

사실 세제 감면 중에서 법인세를 얘기하시지만 사실 자치구와 시 단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취득세 부분이고 이것을 감면함으로써 신규 유입에 대한 어떤 유인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 위원1

자기네들이 확장할 때 새로 어떤 시설을 넣을 때 취득세를 감면하는 건가요?

#### 성동구 발표자

신축할 때 50% 이상 권장 업종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 신청이 들어오면 용적률 혜택을 주고, 저희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그 분양자들에 대한 취득세와 원시취득 신축에 대한 취득세가 있을 때 일정 비율 이상이 된다고 하면 감면해 줍니다.

#### 위원4

구청 내의 조직들로만 조직체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권장업종과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는 특별한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 지식센터 관리단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관리하는 사람들이 협의체인 것 같고요. 입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하고의 어떤 연결 체계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나요?

#### 성동구 발표자

저희가 이제 상공회와 일단 기존 조직이 상공회와의 연계를 계속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에 서울시 우리 전략산업기반과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억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공회뿐 아니라 it 관련 기업들에 대한 네트워킹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자문단도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4

여기 환경 개선 관련해 가지고는 성동형 스마트 시티 조성 예정 사업 이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일종의 이제 거리들을 조금 더 it에 특화된 형태로 전체적인 지구를 지구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어떤 구상이나 사업 같은 것은

없나요?

### 성동구 발표자

저희가 사실 지구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 자료, ppt 말고도 있는데 주요한 것들만 저희가 ppt에 넣었고요. 준공업 지역에서 전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20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이제 위에 빨간색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성수동이 워낙에 집값이, 주차장 하나를 확보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주차장 공유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자원 부분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업 지역 지구단위 계획 속에서 도시 환경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6

진흥지구를 준공업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 저는 제가 이 지역을 가봤었는데 거의 블락으로 치면 지하철역 3개 정도 분량인데 이렇게 넓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 성동구 발표자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성수 지역을 저희가 처음에는 일부 지역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황은 전체로 이미 현상이 현실적으로 권장 업종이 이렇게 성수동 전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을 다 지산으로 만들겠다, 혹은 또 모든 산업에 우선해서 다른 산업들은 배제하고 이 산업만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 지산을 기반으로 한 it라든지 권장업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존에 있는 진흥 지구인데 이것과 그렇지 않은 지구와의 구태여 이제 차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 위원6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설정해놓은 범위에서 알아서 들어와야지, 이 사람들 다 포용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저기 서울숲역 건너편이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거기는 왜 안 해주냐라고 하면 사실 할 말 없거든요.

### 부위원장

다른 진흥지구 계획하는 것에 상당히 안 좋은 메시지를 저는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 위원6

취지는 그걸 공감을 하는데 너무 넓다고 생각합니다.

### 성동구 발표자

이미 성수동 자체의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들어와 있는 it뿐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다른 기존 사업 기업들도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진흥 지구는 권장 업종에 대한 어떤 활성화와 지원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고요.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들과의 아까 젠트피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성에 대한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같이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 부위원장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에 종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5

질문 더 있을 때는, 발표 시간은 타이트하게 해야겠지만 질문이 있다면 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시세 감면 조례 개정 후에 당연히 아직 감면 사례는 없죠?

### 성동구 발표자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실제로 신축이 완료되면 신축에 따른 취득세가 들어올 거고

### 위원5

그러면 취득세 감면 사례는 당연히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수 있네요.

### 성동구 발표자

네 나올수 있어요. 기존 건물을 새로 이전, 그니까 매입했을 때 이제 권장 업종 시설로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취득세를 감면하는 상황이어서 그

령습니다.

### 위원1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해서 이게 제가 좀 이해가 확실히 안 돼서 그러는데 탈법적 사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탈법적 사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 성동구 발표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성공해서 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법으로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갱신권에 의해서 쓸 수 있고 일정 비율 이상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다 이용을 합니다. 내가 들어와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갱신권을 소용없게 하고,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꼭 권장업종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수제화라든지 이런 부가가치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에 취약한 업종들이 좀 없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발굴, 사례들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꼭 법만 완벽하게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부분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5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it 업종의 회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들이에요? 어떤 it를 주로 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

### 성동구 발표자

사실 it가 모든 산업에 지금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패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5

근데 이제 현장을 아시니까 주로 어떤 회사인가요?

### 성동구 발표자

게임 회사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이제 도시 계획 같은 것들 지식기반 산업.

### 위원5

그런데 사람들은 성수동을 진흥지구라고 알고 있는 시민들은 잘 안 계시고 카페와 맛집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보통은 저렴하게 지어서 임대료로 수익을 얻게 짓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예쁘게 짓는 분들이 잘 없다고 그러죠. 자치구 입장에서 진흥 지구를 넓히고 예산도 지원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자꾸 생기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예쁜 곳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 성동구 발표자

두 번째입니다.

### 위원2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예술적인 감각으로 그리고 싶고 해서 좀 특징을 같은 지식센터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은 이렇게 같이 하모나이즈 하는건가요?

### 성동구 발표자

저희가 사실 붉은 벽돌 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구청에, 붉은 벽돌, 공장이 신축할 때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금 지원을 합니다.

### 위원3

방금 말씀에 대한 대답은 아니고, 구로동이 어떻게 변했나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가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산 위주로 가겠다는 거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좁은 골목에 정말 흉물스러운 지산이 있어서 교통 마비 그다음에 주변 경관 해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 성동구 발표자

용적률이 400%입니다. 400%고 저희가 용적률 인센티브 120% 올라가서 480%를 지을 수 있거든요. 사실 480% 정도는 권장 업종을 유치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 공지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이제 기부 채납을 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480%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면 저희가 진흥지구를 해서 it 권장업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지산에 사실은 저희

가 그걸 하지 않아도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산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어서 이미 들어오는데, 이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는 그러면 권장업종을 유치한다는 조건으로 480%를 채우겠다라는 형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산업들을...

### 위원3

IT의 권장 업종은요, 쉽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위원5

진흥 계획을 새로 만드셔야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여기는 이제 아름다운 곳으로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규제를 하잖아요. 이제 여기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대부분 낮은 거 보니, 대부분 구청 위원회에서 규제를 할 텐데 그 과정을 좀 잘 살피셔서, 지금 가보면 제일 싼 내장제를 써서 다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네모 반듯하게, 견폐울 막 채워서. 그런식으로 가면, 그 규제하는 거를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진흥계획에 담는 게 어떨까요.

### 성동구 발표자

준공업 지구단위계획인데, 지금 그러한 내용들, 다양성의 문제들을 포함하는, 그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까지를 포함하겠습니다.

### 위원3

확장하는 것도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더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포입니다.

(마포구 발표자 입장)

### 부위원장

발표는 8분, 질의응답 7분입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발표)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문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5**

저기 아까 그 시설 건립하신다는 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이게 193억이 전액 구비 인가요?

**마포구 발표자**

아닙니다. 이게 국비도 있고요, 시비도 있고요, 네, 섞여 있습니다.

**위원5**

그럼 뷰티패션산업과 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마포구 발표자**

이게 193억은 전에 20년, 전에 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따온 예산도 있겠고요, 예산 국비 지원이 25억 정도입니다.

**위원5**

구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마포구 발표자**

저희 구비는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6**

160억이 시비에요?

**마포구 발표자**

아니요.

**위원5**

착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11월 착공인가요?

**위원6**

예산은 다 마련이 됐나요?

**마포구 발표자**

네, 예산은 다 되어 있고요.

**위원6**

다 통과가 된 건가요? 160억이? 시비가?

**마포구 발표자**

지금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도시 계획과의 주요 사업입니다.

**위원5**

이게 아직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포구 발표자**

올해 이제 지금 용역을 발주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변경이 되면서 올해 11월 착공에 들어가요.

**위원5**

그러면요. 그래서 앞에 현재 지금 홍대 복합역사에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를 다른 용도로 바꾸실 계획이 있나요?

**마포구 발표자**

지금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런 저런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출판문화진흥센터는 매년 구비, 저희 마포 구비로 14억 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판문화 진흥센터가 2층하고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2층에 워크 플레이스라고 이런 공유 사무 공간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한 61석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22석 정도가 출판으로 이렇게 해서 사



용이 되었고 39석 정도 공실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지금 스마트앵커, 금방 짓겠다는 건물에서 마포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방송 분야 콘텐츠 청년들이 한 16명 정도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전을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문화진흥센터 2층의 공간에 이제 유휴 공간이 한 39석이 있는데 16석을 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출판 분야 거기에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조금 이해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5**

그러니까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꾸시는 건 아니다? 다만 입주 공간의 일부를 꼭 출판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임시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것이다? 그거죠?

**마포구 발표자**

네, 방송 콘텐츠 분야, 16석 정도만....

**위원5**

제가 우연치 않게 그저께 저기를 가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저런 센터라는 이름을 건 곳 중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마포구 발표자**

내부 시설이 워낙 좋습니다.

**위원5**

계속 출판문화 진흥을 위해서 쓰실 거죠?

**마포구 발표자**

그럴 건데 지금 저희가 스마트 앵커 지금 소공인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잠시 철거 예정이다 보니까 이주할 데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마포 구비 14억을 들이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공간을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2**

현재 공간에서 출판이나 활동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마포구 발표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기업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실무 지식들을 멘토링 하기도 하고 아까 세미나나 서로 네트워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2**

입주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마포구 발표자**

보통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고, 개인 창작자도 있고 기업, 조그마한 소기업들, 한 3인 정도로 이루어진 분들, 거기서 이제 책을 또 많이 발간을 하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위원2**

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런 작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포구 발표자**

네. 작가들도 거기 와서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출판문화진흥센터는 또 이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와서 책도 읽을 수 있게끔 하고...

**위원2**

출판문화라고 했을 때는 책을 만드는 플랫폼을 얘기하고 보통 작가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스스로가 하는, 책까지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면, 창작자들을 포함해서 주로 쓰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마포구 발표자**

출판 시장이 이제 조금 큰 데 같은 데는 이런 데 입주하기는 사실은 조금, 파주로 많이들 이동을, 저희도 출판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기업으로 거의 1인 작가들이나 이런 전자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2

어떤 기간을 주시는 겁니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 마포구 발표자

네 입주 기업, 보통 입주 한 3년은 기간을 주면서 또 다시 공모를 합니다.

## 위원1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60석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점유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 마포구 발표자

이거는 이제 자유로운 입주 공간입니다. 사무공간을 1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2층이고요. 3층은 이제 입주 공간, 기업들이 조그만 소기업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2층은 그냥 자유로운 업무 공간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쓰게끔 합니다.

## 위원3

그리고 이제 이 분야가 특히 이제 북 디자이너가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홍대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특성이 점점 소규모화 될 것 같아요. 개인 1인 기업화 되기 때문에 정량적 실적이 좋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봤을 때 좀 안 보이는 게, 그럴수록 어떤 협의회나 이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자료가 오늘 없어서, 그런 거버넌스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마포구 발표자

저희가 이제 협의회는 네트워크 지역운영협의회가 민간으로 있습니다. 구축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또 홍익대학교는 디자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출판문화진흥센터하고 그 내의 홍대하고 저희가 같이 또 다른 이런 명맥 있는 디자이너들하고 운영 협의회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대의 유명한 교수님들도 지금 저희가 출판문화진흥센터에서 초청을 해서 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위원3

교육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실제 운영, 사업하시는 분의 협의회가 있나요?

**마포구 발표자**

네, 있습니다.

**위원4**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이쪽이 디자인이나 출판 관련된 좀 규모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곳이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이제 이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쪽에 그걸 활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쪽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 주거 지역 내의 일부 시설들을 그런 어떤 업무 시설용으로 좀 개조하거나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고 그와 관련된 규제들도 조금 완화해 주고, 취득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업무 공간들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게 진흥 지구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들이 좀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마포구 발표자**

보통 이제 신축 건물로 문의를 많이 하세요.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셔서 신축 건물을 짓다 보면서, 저희가 권장 업종 이제 유치율에 따라서는 용적률을 좀 완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처음에 신규 업종 신축 건물을 지으려고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면 이제 권장 업종이 한 50% 이상 본인이 그쪽에서 그 출판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용적률 120% 정도 상향을 시켜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4**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좀 변경되거나 그러면서 업체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거나 이런 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성과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포구 발표자**

지금 성과가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주차장을 좀 기준을 완화해서 하고 있는 데는 한 두 군데 정도 있고요. 신축 건물로 지금 그냥 제일 유명한 마음 산책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건물은 이제 용적률을 최고 120%로 해가지고 도서 출판건물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3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 지역에 개인 주택을 구매해서 출판사를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 위원4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성과가 아니더라도 진흥지구 사업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과들을 좀 잘 이렇게 좀 모으시면 정량적인 평가도 굉장히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 위원3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2

젠트리피케이션. 그 지역이 굉장히 막 변신하고 다 그럴 텐데 그거를 보완하는 어떤, 출판문화는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그것을 뭔가 더 활성화 시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마포구 발표자

그게 이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건축물 완화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참고하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2

건물을 또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어떤 수요 기반으로 건축을 하신 건가요? 공실도 많고, 들었을 때 많이 올 거 같지가 않은데...

### 마포구 발표자

아 저희 새로운 복합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저희가 같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금 인쇄 출판 쪽이 또 많이 이게 1인 출판이 많다 보니까 또 이게 비싸잖아요. 여기 그 자체가. 그런 건물들이 출판을 계속 파주 출판 단지로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1인 출판 기업자들이, 요즘에는 1인 출판이라는 게 꼭 출판만이 아니고 디자인 업종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원하는 분야가 되게 이런 사무 공간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저희가 다 구비를 그래서 기계실을 기계 같은 거는 다 구비를 했고, 입주 공간을 제공해주는 시설로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잠깐 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어서 하면 어떠실까요? 그냥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발표자 입장)

### **부위원장**

발표는 8분, 질의응답은 7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중랑구 발표)

### **부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응답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1**

포플 운영하시면서 아이템도 많이 개발하시고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이 매출로 나오나요?

### **중랑구 발표자**

매출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좀 유명한 모델을 쓰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했을 때는 저희가 한 1억 2천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요. 22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줄면서 저희가 1,6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아이템 개발 사례도 저희가 21년에는 53개, 작년에는 20개인가, 이렇게 아이템 수도 좀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매출에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 위원1

이게 계속 발전되고 확장되어야 하는데 막히는 제일 큰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 중량구 발표자

사실 저희가 스마트 앵커 협동화 사업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 2억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하고 회의하고, 이제 업체도 저희가 관내 봉제 업체들한테 일감을 주고 홍보해서 판매까지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 위원1

21년하고 22년하고 예산이 달라졌나요?

## 중량구 발표자

20년도에 저희가 처음 포플을 개발을 했는데 20년도의 예산은 21년도로 이월을 해서 21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1

이게 포플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가요?

## 중량구 발표자

봉제 업체들은 디자인도 봉제 업체들이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포플이라는 것만으로는 중량구를 대표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브랜드여서 저희가 사실 포플도 대량으로 제작하지 못하고 소량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고급화 이미지로 사실 가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가의 대량 물품 생산 부분은 중량구 이미지, 봉제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포플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좋은 옷으로 이런 기술로 우리가 포플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고급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이 활성화 사업 예산 2억을 저희가 받은 부분이 있어서 협동화 사업 기존 예산 2억에다가, 지금 올해 보조금 받은 2억을 포함시켜서 좀 더 개발과 판매 전략을 나눠서, 마케팅을 나눠서 홍보하고 지금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2

지원 체계를 일원화 할 예정이라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와 도시재생과에서 기업지원과로 거버넌스를 그냥 넘겨온 건가요? 또 팀 신설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넘어온 건가요?

## 중랑구 발표자

도시재생과가 사실 올해 1월 1일 자로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서 다른 부서로 전환이 됐고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다른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개선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저희 진흥지구와 관련된 도시재생사업만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2

그다음에 미흡 사업 보완 추진에서 중랑 봉제 통합 포탈 시스템 구축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중랑구 발표자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협업화 사업이라고 해서 공동 플랫폼을 한번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 위원2

공동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공동인가요?

## 중랑구 발표자

협업화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작년에 서울시에 있었고요. 저희가 선정이 돼서 봉제 업체들을 위한 플랫폼 사업을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사실 봉제 업체들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공장을 찾아가야만 옷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을 인터넷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티셔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원단과 디자인을 선택하고, 부자재들을 선택한 후에 이 옷에 대한 시제품에 대한 금액이 나오고 그걸 다시 이제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그걸 직접 공장에 가서 확인하고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저희가 지난해에 만들었는데, 봉제 업체들도 직접 공장을 가야만 내가 옷을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고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중랑구에는 청년 주택이 지금 10개 이상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도 저희는 이런 플랫폼 시스템이 좀 디지털화돼서 저희 스마트 앵커에 들어오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 위원2

베타버전을 만들고 23년에는 좀 더 강화시킬 그런 계획인신가요?

### 중랑구 발표자

네, 지금 저희가 작년에 만든 사이트가 ‘누만다’ 라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지금 가장 유명한 플랫폼은 사실 오슬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슬도 들어가 보고 이제 중랑에서 만든 누만다라는 플랫폼도 들어가 봤는데 기존에 이제 유명해진 오슬이라는 플랫폼보다는 규모도 작고 일단 협동조합에서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정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긴 하지만, 그 작년에 플랫폼 6개월간 만든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9천만 원의 매출 실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소공인들을 지역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뭐가 필요한가를 질문을 받고 할 때도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오슬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생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작년에 만든 플랫폼을 조금 더 키워서...

## 위원3

오슬은 민간인가요?

### 중랑구 발표자

네 오슬은 민간입니다.

### 위원1

그러면 오히려 민간이랑 매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중랑구 발표자

저희도 이제 플랫폼을 조금 키워나갈 수 있으면, 요즘은 이제 다른 다양한 협력업체가 있고 회원사도 지금 4천 개 가까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더 퍼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이제 시작 단계지만 봉제 업체들이 그래도 중남부에 많이 있고 사실 이런 디지털을 어려워하시는 소공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홍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런 것도 이런 정보도 있다고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쪽으로 홍보도 저희가 사실 필요한 상태입니다.

### 위원3

네, 지역은 물론 상당히 지원센터를 오랜 기획 끝에 하셔서 잘하고 계시는데, 생태계가 중요하잖아요. 그 재단사도 필요하고 이제 거기에는 그 회사에 넣고 또 커트 기계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 생태계의 육성을 위해서 하시는 지원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계속 기업 입주에 치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의 옷을 만들려면은 경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왔다갔다 해야되잖아요, 일을 하실 때...

### 중랑구 발표자

저희 진흥 계획이 사실 클러스터 구성에 집중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사실은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진흥 계획에서 담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중랑구에 있는 봉제업 실태조사도 지금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진흥 계획에 담겨서 저희가 중랑구만이 낙후돼 있기도 하고 봉제 업체들도 사실 너무 소규모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인가공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반영할 수 있는 진흥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위원4

도시재생사업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하게 많은 사업들을 사실은 했고 정비도 좀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산업인데 그래서 패션이나 봉제 쪽에 이제 너무 거기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가지고는 이 산업을 키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지털과 연계된 플랫폼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무튼 좀 더 이렇게 좀 패션 봉제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 더 확장을 계속해야지 다른 분야로 확장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 산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더 봉제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중랑구 발표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1

오늘이라는 기업과 만나본 적 있나요?

#### 중랑구 발표자

아니요 만나본 적은 없고 사이트만...

#### 위원1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받으시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이쪽은 30대 패션이기 때문에 봉제는, 오히려 민간에서 사업을 보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참고하고 확장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 위원3

발상의 전환이죠. 관련된 아까도 질문 있었지만 포플은 기업들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먼저 한 건가요?

### 중랑구 발표자

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입니다.

### 위원3

우리나라 지역 공동 브랜드가 수천 개가 있는데 의정부시도 있고, 동두천시도 있고, 의류만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성과도 나고 이제 또 힘드신 분들 도와주면 좋는데 구청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사실은. 아까 오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플랫폼을 하시는 게. 그래서 조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소프트랜딩하면서 또 다른 업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위원2

궁금한 건데, 폐업률은 어떤가요?

### 중랑구 발표자

폐업률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진흥 계획을 처음 수립했을 당시보다는 저희가 그 당시가 194개고 현재는 179개로 조금 진흥지구 내에서는 사실 줄어든 상황입니다. 대신, 종사자들이 당시보다 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위원3

센터에 들어오려는 입주 티오는 여전히 많죠?

### 중랑구 발표자

예 많습니다.

### 위원5

스마트 앵커 조성 사업을 빼면요. 제일 중요한 사업이 어떤 거예요? 그 예산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 중랑구 발표자

저희가 클러스터 조성을 빼고는, 사실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다른 것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 위원5

그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확률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종사자들이 연령대가 높다고 저도 들었는데.

### 중랑구 발표자

에 맞습니다. 50대 이상 분들이

### 위원5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사업에 제일 주력하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 중랑구 발표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저도 이제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2,900개의 봉제 업체가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분들이 모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들에 대해서 소외되는 소공인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있고, 봉제 인력을 저희가 계속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봉제 창작소에서도 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망우동에도 별도로 봉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봉제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봉제 업체들 저희가 협회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요즘은 봉제인들이 회사에 등록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사무소에 등록을 해서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을 가져다가 쓰는 인력 구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속에 회사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 사실 10명 안팎인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원단 폐기물에 대한 부분, 저희는 봉제 업체 협회 분들을 만나면 그 두 가지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어서

진흥지구 안에서의 사실 유인책도 접도 조건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미미하기도 하고 저희가 구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원단 폐기물 부분이고, 또 그 인력에 대한 인력 수급 문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대문 한방 서울 약령시죠.

(동대문구 발표자 입장)

**부위원장**

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발표는 8분, 질의응답은 7분, 이 포맷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발표)

**부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1**

방문객이 많으신 것 같은데 21년 대비 22년은 얼마나 증가했어요?

**동대문구 발표자**

네. 한방시장은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지 않고 있고요. 센터는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체험 전시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가라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2017년 말에 개관을 해서 2018, 2019에 이제 앵커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가 열차게 했지만 170명이었는데, 코로나 3년 겪고 지금 지난달에 230명 그러니까 티켓팅만 230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텃마루 오는 사람, 시장 왔다 갔다 하는 사

람, 카페 이용자 그런데 임대 시설이라 거기에는 카운트 안 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매일 한 500명 이상은 온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에는 그 이상의 수가 방문을 하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최근에 바로 옆길 경동시장 스타벅스 1960점이 굉장히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거든요. 덩달아서 이제 덩달아서 불씨가 지펴지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3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팀장님의 의지가 아주 강하신 것 같습니다.

### 동대문구 발표자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인정받아서 문체부의 추천 관광지, 서울관광재단의 추천 관광지 등 여러 가지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3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있는 게 이제 약재 탕제 한의원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탕제 같은 경우는 꾸준한 수요가 있지만 관광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 동대문구 발표자

그래서 의료 관광으로 접근합니다. 센터에는 진료소도 있어서 일반인들이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진료, 국민 진료보다는 건강 상담해 주고, 사상 체질 강의를 해주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미리미리 한의학의 정수가 예방의학쪽이고 미병인 상태에서 병을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의료 유치기관이랑 저희가 조인해서 관광공사의 의료관광 협력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기관과 한의원과 조인해서 이렇게 탕약도 살 수 있도록 하고 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보건 서비스업도 이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1

근데 여기 한방 전문가라고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동대문구 발표자**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지금 웰니스 관광 전문가 법률을 만들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만들고 있고, 현재까지는 민간 자격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허브협회에서 하는 그런 거와 약선 전문가 협회에서 하는 무슨 과정인데 그래도 이제 문턱이 낮게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 무슨 약선 차나 음식이나 이런 거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와서 애 키우고, 좀 뭔가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듣고 자격증 그래도 멋있게 나오면 그리고 이제 이미 식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식당에 걸고 또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한테 배우면서 또 그걸 내걸고 창업을 도모하고 이런 효과를 도모하고 있고 거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간 협회 자격증이라는 말씀이시죠?

**동대문구 발표자**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5**

도서관은 언제 건립을 하시는 거죠?

**동대문구 발표자**

도서관은 올해 장소를 물색하고 있어서 빠르면 올해, 소규모라도 올해는 하고 일부 공간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 크게 할 생각을 검토 중인데 확실하게는 올해 이제 로비와 이걸 유효 공간을 활용해서 한의학 전문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5**

도서관의 고객이 누군가요?

**동대문구 발표자**



고객은 모든 방문자분들, 이제 요즘은 모든 공간이 도서관이라고 해도 책만 진열하지 않아서 복합 공간으로 가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는 한옥이기 때문에 마당을 보면서 책 하나 딱 보고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인스타 찍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찍힌다, 고로 존재한다’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찍힐 수 있는 멋진 공간을 마련하고 또 그러면서 책도 좀 보면서 한방 건강 지식을 쌓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목적으로 할 계획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 공간은 마련돼 있거든요.

## 위원2

스타벅스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어느 지방에 가보니까 커피 원두가 주긴 하지만 치커리하고 커피를 치커리 커피라고 해서 이렇게 좀 특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런 스타벅스랑 좀 협력해서 한방과 관련된 새로운 커피나 메뉴를 개발해서 활성화할 계획은 있나요?

## 동대문구 발표자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무한한 가능성으로 말씀드린, 그런 식품 쪽으로 할 게 되게 많거든요. 현재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방 테마 약령시도 바뀌고 있습니다. 김밥집이 이제 생겼는데 골목에, 나물 김밥, 구기자를 조금 넣는, 오미자 같은 거 가미하고 그런 청년 기업도 생기고 있고 한데 현재는 그 스타벅스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오게끔 하는 데 지금 이제 1차적으로 힘을 쓰고 있고, 차후에는 그리고 쌀 커피 같은 것도 있거든요. 카페인 좀 싫어하는 임산부나 그런 사람들은 쌀 커피 같은 거 되게 좋아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강황 식혜 이런 것들, 무궁무진합니다. 식품, 바이오산업, K-뷰티 이런 쪽으로.

## 위원4

전체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제 의료관광도 말씀하셨고 한방 체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성과로 잘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그걸 잘 모아서 실제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사업체, 종사자 수, 이것만 가지

고 있으니까 성과들이 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좀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동대문구 발표자**

그것도 이제 숙제 중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앵커 시설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이랑 예산 그리고 세입 이런 게 투명하게 다 나오는데, 대체로 아직 약령시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1인 기업이어서 종사자 수나 매출액이나 이런 게 잘 통계가 안 잡혀서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가지고 평균 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 **위원4**

통계를 꼭 잡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의료관광 전문 업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활동 같은 걸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유치된 실제로 와서 좀 체험하거나 왔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 어느 지역, 어떤 나라인지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잘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성과일 것 같아요. 꼭 통계만 이렇게 그냥 거기에만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 **동대문구 발표자**

이렇게 정리를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말에 해제돼서 5월부터 조금 그게 더 가시화된 게 있어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연간 통계를 이렇게 갖고만 있지 않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5**

여기 저 외국인 관광객들도 오나요?

#### **동대문구 발표자**

외국인 관객 지난주에도 하와이 여행사에서 차 두 대 왔거든요. 저희는 이제 엑셀로 통계를 다 잡아놓고 있는데 그걸 이번에 제출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하늘길이 열려서 좀 작년 말부터 오고 있습니다.

위원5

그러니까 패키지 상품으로 여기를 들렀다 가는 게 있어요?

동대문구 발표자

네. 그런 상품화를 이제 일단 공사에서 추천 관광지로 선정해 준다는 거는 정말 큰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행사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여행...

위원5

주로 서양인 분들이예요, 동남아 분들이예요?

동대문구 발표자

주로 일본이 제일 가깝고 많이 와요. 또 이유는 일본은 그런 접근이 안 돼요. 소비자가 오미자나 녹용이나 이런 걸 살 수가 없어요. 엄격하게 일원화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관광도 하고 뭔가 사갈 수 있는 조금 지갑이 두둑한 관광객...

위원5

일본은 한의사가 없는데.

동대문구 발표자

네, 그래서 못 사요. 그래서 엄격하게 정부가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약성이 있는 것 같은 인삼이나 이런 걸 사고 싶어도 못 사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많이 사가는, 그래서 많이 방문하는 중요한 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은 중동. 중동은 우리 한류를 굉장히 좋아해서 중동 쪽 많고 또 지갑도 두툼하시고.

위원6

중국은 없나요?

동대문구 발표자

중국은 대만 홍콩에서 많이 오고요. 중국은 의외로 인구 규모에 비해서 많이 안 오는 편인데 생각해 보기를 중화사상 때문에 중의학이 더 낫지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위원3

아니, 아직 패키지 관광은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메인랜드는 아직은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대문구 퇴장)

### 부위원장

다섯 지역에 대해서 다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혹시 점수를 각자 하고 계시는데, 점수에 대한 거라기보다, 혹시 함께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마친 다음에 각자 점수를 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5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결론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는 3억이고 한 군데는 1억이고 나머지는 2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할 것 같은 곳, 제일 못 할 것 같은 곳을 정하신다는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항목별로 사실 이걸 계량화해서 점수를 정확하게 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 위원2

근데 이게 지금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근데 인센티브는 같은 스케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 위원5

규모라는 것이 그 지역의 넓이?

**위원2**

산업의 규모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위원5**

근데 이게 200억, 2천억이 아니라 2억, 3억이라서.

**위원2**

아니요. 그 지역, 지구의 스케일이 지금 제가 듣기에는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IT를 하는 데하고 출판하는 데하고 좀 스케일이 다른데 인센티브는 그냥 같은 스케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정한 건지.

**위원5**

지원 사업의 종류나 규모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1**

지금 어려운 게 1등을 뽑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1등의 인센티브가 굉장히 크니까요.

**위원6**

그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3억 그다음에 2억 3개, 1억은 그거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약간 무분별하게 2, 3, 4등을 나눠먹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0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1등 5억, 격차를 좀 더 크게 하고 꼴찌를 하면 거의 2천만원 이런 식으로요. 그게 지금은 안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죠.

**부위원장**

점수를 주다 보니까 1등을 내가 염두에 둔 곳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애매하네요. 제 생각에 그게 토론으로 도출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이 더 상의하실 게 없으시면은 점수 주셔서 바로 합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표 작성 및 집계)

### 부위원장

동점이 됐네요. 최종적으로 동점인데, 정성적 평가가 우선이 되는 거니까 □□ 지구가 1위가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 지구를 S등급, ■■ 지구는 A등급, ◇◇ 지구는 B등급, ◆◆ 지구가 A등급, △△ 지구가 A등급,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 결과 및 보조금 지원금에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들 의견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서 서명)